

충남약사회 권역별 제2차 토론회

대한약사회와는 별도로 충남약사회 투쟁위원회 로드맵

1. 목적 ...
2. 회장단 분회장...
3. 대정부, 대국회, 대언론, 대국민, 대회원
4. 1.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 천안 양승조의원 만남
국민여론을 바꿔달라. 여론이 안 좋으면 여론을 따라야함. 총력을 기울여야함. 여론을 언론이 악화시킴.
2. 대국민홍보전략수립: 전단지홍보, 부채, 플랭카드 - 각 약국. 도와주십사
3. 대국민호응전략 : 당번약국 5부제
4. 권역별 토론회 개최
5. 필요시 수시로 소집
6. 예산
7. 일정 ...

보령 허해동약사

제가 생각하기에 포커스가 어디에 가있는가가 중요. 수퍼판매를 할 것이냐로 하면 패배한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바꾸자. 응급의원이나 응급약국이 수퍼판매보다 낫지 않느냐고 질문하면 낫지 않겠느냐. 대안을 내놓고, 포커스를 그리로 바꾸자. 설문조사도 수퍼판매를 물어서 여론의 못매를 맞을까봐 일선 회원이 참여하기 어렵지만, 포커스를 바꾸면 호응도가 높지 않겠느냐.

전일수

싸움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 국민들이 대통령의 수퍼판매발언과 언론에 호도당한 모습.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홍보를 기울여서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행정부는 대통령명령에 따르지만, 정치권은 다르다. 공청회도 대국민선언을 하고 빠져나왔는데, 거기서 주장한 것이 공공의료센터이다. 공청회 참가는 정부로드맵따라가는 거라 의미가 없다. 추미애의원이 공공의료센터법안을 준비중. 일본에서 의약분업이후 심야시간 의료공백을 커버하기위해 보건지소등을 활용해 공공의료센터운영. 심야시간 의사와 약사가 근무해야 하나 일본은 특이하게 약판매사가 근무. 우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유럽의 공공의료센터도 감안해서 주장해야. 국회쪽에서도 준비작업중.

보령 허해동약사

설문지에 '수퍼판매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은 하면 안 된다. 포커스를 바꿔라.

백광현

수퍼판매라는 발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약사에게 책임전가하는 것임.

전일수

배경설명을 해드리면 청와대에서 말하는 것은 '편익'임. '편의'가 아님. 약을 수퍼로 판매했을 때 얻는 전체 국민의 이익이 약사들의 희생보다 크므로 약사가 희생해야한다는 말임. 약사회는 '편의'로 생각해서 5부제를 제시한 것이나 청와대는 '편익'을 생각하므로 거절함. 무조건 약이 약국외판매로 가야한다는 것임. 약 전체중 2/10인 일반약시장이 2조5천억원시장인데 70%가 가정상비약시장임. 약국외판매가 되면 광고시장이 과열되고, 종합편성미디어재벌의 수입이 된다. 약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시장논리로 판단해서 시장에 푸는 것은 잘 하는 일이 아니다. 지방은 늦게까지 문어는 약국 많다. 대도시가 문제. 여의도는 7시면 건물들이 문을 닫음. 고위관료들이 당직서다가 나와보면 종로까지 약국문 연 곳이 없더라. 처방전에 치우치고 일반약을 소홀히 하고, 문 일찍 닫은 약사 잘못도 있다. 쫓기대회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논리적인 대화를 하고 약사법개정전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그래서 토론회.

손병표 서산분회장님

약국외판매가 약사의 행동으로 저지될 수 있는가

약사법개정이 어떤 뜻인지

언론에 의해서 여론이 결정된다면 응급피임약을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사는 것이 좋은가나쁜가, 7시이후 병원 폐문후, 약국직접조제가 좋지않은가 여론에 물어보면 어떤가

백광현

저지가가능한지 모르겠다. 9월상정, 11월통과인데 저지를 하기위해 노력중.

손병표

충남약사회 권역별 제2차 토론회

내일부터 48품목 판매. 이미 토론회가 늦지 않느냐. 아무리 토론했어도 약국외판매는 실시된 것 아니냐

백광현

내일부터 팔리는 건 의약외품. 장관고시(불법적). 인체에 투약하는 물질은 의약외품이 아님.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확대해석하는 문제. 의약품이 풀어진 것이 아님.
법개정으로 만들어지는 자유판매약은 제3의 분류약을 만들어 약국외판매하는 것임.
병원폐문후 직접조제

손병표

여론이 중요하고 여론때문에 밀려온 것이 가정상비약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없어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거라면, 같은 논리로 처방전없이 응급피임약을 판매하거나 병원폐문후 직접조제하는등의 쟁점으로 여론몰이를 해야하지 않느냐

전일수

약사법통과여부는 반반, 국회일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약전략팀에서 다각도로 접근중
고시약부분에 대해서 의견서제출 부탁. 2만개약국 10%하면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2천건이상. 일종의 시위.
약사법위반여부를 판단해서 대응중. 박카스, 까스활명수등 다량 섭취시의 문제등을 고려 재분류싸움(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스위칭)을 벌여 의사를 끌어들이고, 싸움을 확대해서 정부로하여금 어쩔 수 없도록 하자. 시민 단체의 호응을 얻음. 의사협회는 수퍼판매주장하다가 코가 썬 것임. 의사협회에서 수퍼판매 찬성 철회할테니, 재분류 보류해달라고 했다고 함. 보건환경에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야하나, 의사들이 너무 앞서갔음. 재분류로 의사들이 손해. 의사는 약사를 고립시켜 선택분업으로 나가려고 함. 일반의사들은 수퍼판매 동조하지 않음. 고시약(44->48)은 경실련에서 만든 리스트를 그대로 복지부가 수용. 23품목 생산실적이 없음. 약사 역품 맞음. 킬라, 반질연고 등 의약외품 전환은 약국에 영향 미미. 가정상비약은 약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일. 재분류싸움을 벌이면 약국에 얻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정략적 접근중.
약사법개정의 근간은 3분류. 자유판매약 범주를 도입하는데 이것이 가정상비약. 일반약의 70%. 일선 보건소에서 구멍가게에서 파는 까스활명수, 박카스도 관리 못하는데, 법으로 수퍼판매하게 해놓으면 통제를 못함. 10가지 품목을 정한다고 해서 10가지가 아니라 더 가져가려고 함. 수퍼가 약국수준. 동네약국의 근간이 무너짐. 약사들이 갈 곳이 없음. 처방전 건수 많은 약국 근처에 오픈하게 됨. 공멸.
6년제 약사들이 나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시스템 변경이 없이 해결이 안 되는데, 오로지 국민편익만을 외치는 정부가 한심하다.

허해동

속도를 빨리 해주십시오.

태안 강신택약사

수퍼판매에서 한 번 밀리면 무자격자판매, 그리고 일반인 개설까지 풀리는 것 아니냐.
5부제, 박카스정도의 의약품을 맞바꾸는게 복지부, 원희목등이 입을 맞춘 것 아니냐.

전일수

원희목의원이 노력을 많이 했고, 협상중심에 있었으나, 원희목의원이 꼭 했다고 할 수 없다.

강신택

3자합의 깨졌다. 원희목의원 국회의원이 의미가 있느냐. 사퇴하거나 약사회출회는 어떻냐.
길게 보아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통해 공공의료체제에 진입. 앞으로 공공복지제도안에 약사들이 진입해야 약사위상정립과 복지강화. 약사들이 외부와 정책연대해야. 복지제도에서 약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리를 찾아야한다. 성분명처방. 처방전재사용, 기초상비약을 의료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무상지급(국고지원)으로 국가는 재정절감.

백광현

국가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제의하는 것

강신택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책연대하자는 의미

전일수

충남약사회 권역별 제2차 토론회

젊은약사님이 약사들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기대가 된다. 연수교육에서 안희정지사가 하신 말씀이, 약사들이 약사들의 직능을 지켜내고, 개발시키려면, 스스로 힘을 키워야한다. 스스로 개척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적복지체계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한다. 리더와 집행부가 노력해야하고, 약사사회전체가 노력해야할 문제. 의사들만 공중보건의가 있다. 약사도 당연히? 심야시간 공중보건의약사. 경실련에 약사가 한 명도 없다. 약사 국회의원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한다. 원희목과 전해숙 2인. 더 들어가야한다. 청와대 비서실에 의사가 3인이 있는데 정책을 좌지우지. 이런 상황에서는 약사들의 말이 전달이 되지 않는다. 젊은 약사님도 노력해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진출하기 바란다.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하지만, 약사회에서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가정상비약 지퍼백을 차상위계층에 전달하기 위해 30만개 제작. 각분회에 내려올 것이다. 홍보전략으로 분회장님 책임하에 동사무소, 국회의원사무실등 방문해서 약사들이 홍보하면서 일정수량 배포. 산뜻하게 잘 만들었다. 국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함. 앞으로 당당하게 정부에 요구해서 정부에서 진행해야하고, 공공의료센터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야약국에 지자체 지원이 하나도 없음. 규정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함. 행정적인 지원으로, 도청에서 약사감시 안 함. 공공의료센터가 되면 당연히 이뤄질 일이라고 봄.

원희목의원 역할과 책임론 대두. 원희목의원만큼 국회에 가서 노력하는 사람도 없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함. 본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고 모두 책임지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전해숙 의원도 있고, 김상희 의원도 있다. 김상희의원은 재야단체분야에서 입원하신 분이라 공적으로 약사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약사회장출신이라고 해도 일단 국회에 들어가면 약사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 활동의 한계가 있다.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주는 것으로 고마워해야한다. 정책실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역사적인 심판이 있을 수는 있으나 현재 그나마 있는 약사국회의원을 욕하는 건 문제. 연수교육 후 임원들과 원의원 방문은 격려차.

손병표

개인적인 얘기인데, 복지부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약사법개정반대로 당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친구는 복지부직원 약사아님, 원의원이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일수

실제 많은 노력을 했습.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14, 민주당 6, 민노당 1. 23명. 복지위원장은 선진당 이재선의의원. 이재선의의원 부인은 약사. 대전에서 약국운영. 보건복지위에서 이 안을 논의 안 하면 끝나는 것. 정부입법으로 대통령이 서면지시, 복지부에서 입안, 9월전에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제출. 김구희장단식직전 국회방문, 한나라당 정책의장 이주연의원, 보건복지간사인 신상진(의사)의원(성남, 약사회장도 성남), 원희목의원 만남. 정책의장이 정부입법으로 나와도 통과시키지 않을테니까 약사들 조용히 해달라. 올라오면 방망이 안 두드린다.

어제 전해숙의원 만남. 국회의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정치현실. 약사법개정 전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날아갈 지 모르는 상황.

간약당 약사회 비판도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놓고 있음. 약사사회가 이런 위기를 맞은 것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결속력있게 움직이는 것도 처음.

위기에 대해서 약사들이 너무 조용하다. 조용한 것이 이상하다. 그래선 안 된다. 약사법개정등에 대해서도 조용히 넘어갈 것이나. 의약외품고시는 조용히 넘어가서 현재상황이 왔다고 하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약사들이 단합된 행동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

전일수

투쟁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있음. 왜 약사들이 조용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나 말도 나옴. 지부장들도 강하게 어필. 현재 약사를 위해 움직여서는 백전백패, 국민입장에서 봤을 때 쫓겨나야 하는가? 촛불집회 건의하는 약사도 있음. 투쟁위에서 이미 논의한 것임. 대약에서는 앞으로 있을 전국 여약사대회, 선거 등을 감안해서 전국약사대회를 할 것이나, 언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기를 저울질. 약사법개정전에 할 것인가? 개정을 막고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할 것인가 저울질. 여러가지 안이 있다. 일단 대약 투쟁위 전략팀에 위임하기로 하고 전지부가 따라가기로 함. 자칫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더 욕먹는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함. 마트에서 약을 막 사는 게 좋으나 약사에게 설명듣고 사는 게 좋으나 물으면서 분위기를 바꿔줌. 언론은 약사를 매도. 국민을 설득하고 가까이 가야함. 여기에 쫓겨나야 하는가? 촛불대회해서 밥그릇싸움으로 비치고 언론에서 공격하면 안 하느니만 못함. 심사숙고중

백광현

충남약사회 권역별 제2차 토론회

전문약의 일반약으로의 스위칭. 일반약으로 풀리면 약국간 경쟁으로 마진 적어짐. 의사를 끌어들이기위한 전술이지 좋은 것 아님. 한의사는 10개 던지고 1-2개 먹음. 억지주장으로 국민편의를 내세우는 전술일뿐. 국민들에게 말 할 사항은 아님.

서산 흥민지약사

약대생과 연계가 되느냐. 숙대학생들이 와서 회의를 보고감.

서산 흥민지약사

약대생도 관심이 많고, 약대생교육이 여론형성에 도움이 많이 됨. 여론은 인터넷으로 형성.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알바를 써서 여론 호도하는 것 아니냐. 약대생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알바를 쓰는 맥락이 아니라, 정식으로 교육시키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약대생들이 체계적으로 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은 도움. 약준모 수퍼판매에 대한 문제점 동영상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호응이 있겠다 생각했다. 국민의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저 그런 것일 수 있으므로, 치사하지만 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일수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느낌.

약대생들이 현안 위기상황에 동참하는 건 당연한 문제. 한약분쟁에는 약대생과 약대생 부모님이 동참. 대약투쟁위에서도 약대생, 약대교수협의회와의 협력을 노력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 특정시점에서는 약대생도 전면에서 나설 것임. 6년제시행으로 약대 가보면 4학년, 1학년밖에 없어서 현재는 추진력이 없음

서산흥민지약사

주변에 투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전일수

유인물, 포스터등. 약국에 부착해주시시오. 분회장중심으로 확인. 부채 배포하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내용이 쓰여져있으니 전달할 때 꼭 설명.

복약지도를 안 해서 못매를 맞았다. 통념상 환자와의 복약지도였으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안 했다고 지적. 가스활명수 하나 전해주면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으나, 직능인으로서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복약지도 틀 준 비중. 예시:팜페이, 스티커, 팜2000복약지도서

서산흥민지약사

정말 복약지도 안 하나?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잘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해야한다. 자성의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전일수

실제로 조사하면 7/10이 안 했다고 함.

백광현

문전약국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전일수

국민도 개념이 없었고, 약사들도 의식을 안 했다

백광현

상담료 안 받는다. 소홀히는 했으나

전일수

국민들에게 납작 엎드려야할 상황.

메신저. 홈페이지-상단에 투쟁위원회.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상황,정책,자료실등 참조.

아고라에 의견을 개진해주세요.

사이버연수교육하고, 글을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전승구

농약, 킬라등 다 뺏기고 어떻게 하느냐. 면허증 반납하고싶다. 회원이 많함. 수퍼판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음. 언론에서만 떠들고 있음. 관심도 없다. 국민들에게 수퍼판매를 더 알려주는 거 아니냐.

백광현

도시와 시골의 차이. 도시에서는 약사를 가진자의 집단으로 보고있습. 형편이 좋으니까 늦게까지 안 여는 것으로 생각.

대약에서 포스터가 나갈 것임. 아이포스터. 환자보다 자녀나 가족이 오남용의 희생이 될 거라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타이레놀 간독성등 말해도 국민의 관심 환기시킬 수 없습. 전술이 필요. 지피지기. 내부에서 감정싸움하지 말자. 원로약사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허해동

약사공론을 봤을 때, 쇼다. 너무나 임원들이 외형에 치우치는 행동을 많이 했다. 한 것이 무엇이나.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느냐. 어떻게 일을 했기에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살펴봐야한다.

공공의료센터, 심야약국등 말이 나오나, 각 약사회 지부, 사무실을 중시으로 한 약사가 하루씩만 봐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일반약사의 기부나, 약사회비로 심야약국근무를 하면 되지 않느냐.

나이든 사람은 메신저 어렵지 않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전일수

약사회집행부 비판에대해서는 송구스럽다.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현실에서 임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심야약국은 전국적으로 분회별 시군별 200개정도가 복지부요구사항이었으나, 충족되지 못했습. 6개월 시범운영후 추후 논의하자고 했으나 서울경기부산문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은 잘 이루어짐.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실감함. 청와대에서는 약사들을 못 믿겠다고 함.

회원소통문제. 도시는 소통이 손쉬우나 지방은 어렵다. 넓다. 홈페이지 기능개편 이유. 의견개진도 가능.

사이버연수교육시 개인신상 입력 안 하면 넘어가지 못함. 도약에서 긴급한 사항은 문자로 전달. 신속성확보.

서산권용욱약사

지금 김구회장의 마음의 편지를 받고 위안 받을 시기는 아니다. 삼성화재 약화사고보험도 지금 시기가 아니다. 병원협회 원내조제서명. 병원약사회 조용. 우리도 분업철회를 들고 나가야하지 않느냐. 유시민의원이 공공약국 제안. 의협이 진수희장관 퇴진성명발표-그에대한 조치는? 사이버마약감시단 피켓시위도 봤는데 우리 편을 만들어야할 시기 아니냐? 녹소연만이 우리편이었다. 우리편으로 만들 시민연대조직이 있는지. 오프라인에서 말씀하셨지만, 충남 의사협회장이 뭐라고하든 의사협회는 반약사이며, 의사와의 연대는 하고 있는지, 장관고시약물의 귀책은 국민-이 문제 부각시켜야하지 않느냐? 정부의 무책임을 부각시켜야한다. 패밀리마트는 이근희 처남소유. 대기업과 종편과 삼성을 묶어서 가야한다. 미래에 우리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아야한다. 돈을 걷어서라도 뭘 해야하는데, 여론전뿐만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모아서 내는 것 좋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놀란 것이,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패널티를 줘야한다. 의약외품 변경고지할 때 의견서를 보내게 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뭔가 소통이 필요하다. 광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어리고 저보다 어린 사람도 많다. 국민여론, 종편등도 있지만, 약사내부의 카운터 문제도 크다. 차후에라도 면대문제는 해결이 되어야한다.

전일수

병원협회 서명전에 대해서는 전선확대문제로 병원협회노조와 병원약사회와 손잡고 조용히 투쟁중. 병원협회와의 싸움이 되었을 때 동력상실을 염려하여 조용히 진행중

유시민의원이 말한 공공약국은 공공의료센터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 추미애의원 공공의료센터법안 준비중. 공공의료가 있어야 공공약국이 진정한 의미. 묶어서 나가야.

진수희장관 퇴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다. 6월3일전까지는 복지부와 협력관계였다가 이후 깨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면지시때문.

우리편이 너무 없지 않느냐. 고립무원이다. 시민단체는 1/3은 의사, 1/3은 약사, 1/3은 종립.

지역의사회장도 미안하다고 함. 협력하려는 관계

인의협 의사들이 10여명 참석해서 약준모토론회 의견개진. 의사들의 수퍼판매는 잘못되었다.

경만호회장이 코너에 몰려서 이슈를 만들려고 한 일이라고 함.

로드맵등 회원들에게 전달되었을때 회원들도 동참했으면 함.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대약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보건복지위만이라도 소액이라도 집중적으로 하자. 후원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어쩔 수 없습.

의견서제출문제. 많은 약사들이 동참. 사실 연습성격. 약사법개정을 앞두고 전회원이 더 많이 할 일이 생김. 5만건 목표. 일사분란하게 달성해줘야함.

카운터문제는 자율징계권이 주어졌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충남에서 카운터, 면대의심약국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신고가 없었다. 대약에서 왜 충남만 없냐고 함. 무기명으로 써주십시오. 회원패널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으로 회원을 강제징계할 수 없으나, 윤리적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방법은 많다. 유관

충남약사회 권역별 제2차 토론회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여러가지 방법이 나온다. 그러나 회원을 보호할 집행부가 회원을 징계하는 건 문제가 있으므로, 회원간 소통으로 문제 해결이 좋겠다. 최후의 방법이 징계. 충남에서 두군데 식약청 감시. 그런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껴뚫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충남회원의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백광현

대한약사회와는 무관하게 삼성화재에서 보낸 것임. 현재 대한약사회는 김구체제가 아닌 투쟁위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병원협회가 움직일 때, 대한약사회는 나설 필요가 없이 의협이 막아주었으나, 경만호회장이 의협을 침묵하게 해서 의협에서도 큰 문제. 병원약사회도 시끄러운 상태. 대한약사회부회장님 말씀,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입장에서는 뜨거운 감자. 사단법인 병원약사회가 따로 있고, 대한약사회에 회비는 2만원만 내나, 표는 똑같고, 회비는 많이 가져감. 방법이 없다.

권용욱

돈을 더 많이 받으면 되지 않느냐

백광현

그렇으면 좋겠는데, 그건 싸움이 끝난 뒤에. 정치후원금 매우 중요하다.

권용욱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 신상신고할 때 후원금영수증을 받아서, 증빙자료청구를 하라고 하자.

-
후원금을 낼 때 이름이 안 들어간다.

권용욱

약사이름으로 내고, 영수증을 요청하면서, 메일을 읽어달라고 부탁.

백광현

카운터문제 매우 중요하다. 카운터문제를 건드리면, 같이 근무하는 약사 마누라가 다친다. 합법적인 카운터를 교육을 통해 양성하자. 약사의 업무분담을 합법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대약에서 고민하는 문제중 하나. 약국보조원제도 논의할 때 아니냐.

전승구

와이프가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백광현

카운터문제에서 떼뺏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

권용욱

수요와 공급의 문제. 앞으로 쏟아져나오는 약사들은 페이가 떨어진다. 6년제가 되면, 의사가 진단하고 약사가 처방하는 제도를 건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팍디. 대약에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한다. 그러며 일자리 창출되지 않느냐. 꼭 약국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하고, 6년제약사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강신택

후원금보낼 때 한나라당은 보내지말고, 타당은 보내고, 한나라당엔 타당에 보낸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자. 카운터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수퍼판매는 안된다고 하면 논리적인 모순인가? 복약지도문제는 사실이지만, 왜 부실한가는 지명구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최소화되어야하지 않을까? 광고를 안 하거나 최대한 규제하거나. 명분은 의약품오남용방지. 담배광고 안 함. 네거티브캠페인. 약광고를 못 하게 할 것을 지속적으로 약사회차원에서 요구해야한다. 종편광고몰아주기를 말하면서 설득하자.

전일수

지명구매라도 한 마디 더하고 물어보자.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약품관리료삭감의 원인이 복약지도. 일본식 행위별 수가제도를 12월까지 협상해서 도입하려고한다. 지명구매는 복약지도료없고, 말이 들어가면 복약지도료 들어가고, 복약지도서가 나가면 복약지도료가 증가. 복지부에서도 교감이 있음. 복약지도문제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더 잘 알겠지만, 6년제 약사들이 나오면 후배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야한다. 그런 노력들을 반영해서 정당하게 수가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충남약사회 권역별 제2차 토론회

백광현

의약외품은 약이 아니다. 부작용은 아무 상관 없지만 자유판매약은 약이므로 문제가 됨.

전일수

기타안건으로 약품관리료삭감과 카드마일리지소득세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관리료삭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보건의료제도상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삭감되었다.

파이를 정해놓고 의약단체가 나눠가지는 보건의료제도인데, 이번엔 의사들이 약사회측 삭감을 요구.

보험재정의 감소를 각 단체가 수용해달라는 보건복지부 요구가 있었습.

규모면에서는 의사협회측이 훨씬 더 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약사들이 더 큼. 특히 문전약국.

행위별수가 도입하고 손실부분을 환원시킨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반드시 다음 수가협상과정에서 이뤄내겠다.

카드마일리지문제. 세무사찰로 약국조사후 통지함. 부산청과 대전청이 먼저 나옴.

소득세법상 한 업종에서 해당업종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된 카드의 마일리지는 소득세에 귀속된다.

안 낼 수는 없다. 대약차원에서 국세청에 문의를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나 국세청은 원칙대로.

대략 4년치. 수정신고. 가산세는 없다. 통지한 날짜가 아니라 천천히 해도 된다. 조금 늦게 내면 이자가 붙는다.

3/10000. 도매상체체크카드. 일반카드는 해당 없음. 약품결제전용카드만 해당. 팜코카드. %를 소득세원에서 감 추려고 시도한 것. 전임회장단때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때도 만류를 했다고 함.

도매상도 모르고, 기장대리나 세무서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이제 시작임.

일반카드포인트는 소득이 아니고, 약품결제전용카드만.

카드사는 자료보관이 3년.